

을사늑약 이후 전북지역 유생 습재(習齋) 최제학(崔濟學)의 항일활동

안성은*

논문접수일: 2019. 11. 6. 심사개시일: 2019. 11. 10. 게재확정일: 2019. 11. 21.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태인의병 해산과 그 이후 항일활동 |
| 2. 습재 최제학과 면암 최익현의 만남 | 1) 구금과 스승 최익현의 죽음 |
| 3. 태인의병 활동 | 2) 그 이후 항일활동 |
| 1) 태인의병 준비 | 5. 맺음말 |
| 2) 태인의병 활동 | 참고문헌 |
| | <Abstract> |

국문초록

1905년(고종 42) 을사늑약 체결로 인해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끊는 한편 전국 각지에서는 의병을 조직하여 무장항쟁을 전개하였다. 전라도에서 을사늑약을 반대하여 일어난 최초의 의병활동은 태인의병(泰仁義兵)이다.

태인의병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의병장인 최익현과 임병찬의 생애와 사상이나 태인의병의 전체적인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최익현과 임병찬의 역할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태인의병을 총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태인의병에 가담하여 조력했던 인물들을 발굴해야만 한다.

본고는 최익현을 최측근에서 조력한 인물인 전북 진안 출신 습재 최제학의 생애

*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 장학조교, E-mail: se01145@naver.com, Tel: 063-283-5251

와 항일활동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최제학은 1901년 최익현과 사승 관계를 맺은 후 군수품 마련 및 최익현의 편지를 각 지역 유림들에게 전달하는 등 의병활동에 중요한 일을 도맡아 적극적으로 의병활동에 가담했으며, 최익현이 순국한 이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항일활동에 힘쓴 인물이다.

따라서 최제학의 기록물인 『습재실기(習齋實紀)』를 통해 그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태인의병 전후의 항일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최익현과 임병찬에게 집중되어 있던 선행 연구에서 벗어나 대한제국기 전북지역 의병사에 적잖은 역할을 한 최제학을 조명함으로써 소외된 이들의 항일활동을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을사늑약, 호남의병, 태인의병, 항일운동, 독립운동, 습재실기, 유림, 경술국치

1. 머리말

1905년(고종 42) 11월 17일(음력 10월 21일) 을사늑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이 일제의 실질적인 식민지로 전락하자 민영환(閔泳煥), 조병세(趙秉世), 홍만식(洪萬植), 이상철(李相喆) 등 애국지사들이 자결 순국하였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는 의병을 조직하여 무장항쟁을 전개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을사늑약 체결로 인해 호남지방에서 일어난 의병활동은 태인의병(泰仁義兵)¹⁾을 필두로, 능주의 쌍산의소(雙山義所), 담양의 고광순(高光洵) 의병, 광양의 백낙구(白樂九) 의병, 남원의 양한규(梁漢奎) 의병 등이 전후하여 일어났다.²⁾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태인의병은 1906년(고종 43) 윤4월 13일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을 지낸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을 중심으로 전(前) 낙안(樂安: 현 전라남도 순천) 군수 돈헌(遯軒) 임병찬(林炳瓚, 1851~1916)과 최익현의 문인인 수남(秀南) 고석진(高碩鎭, 1856~1924)·습재(習齋) 최제학(崔濟學, 1882~1959) 등 유생 80여 명이 태인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모여 거의(學義) 한 것이다.

이들은 열흘 동안 태인과 곡성·순창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결국 전주·남원

1) 1906년 을사늑약의 반대로 태인 무성서원에서 일어난 의병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홍순창은 ‘순창의병’, 정제우는 ‘태인의진’, 신규수는 ‘병오의병’, 홍영기는 ‘태인의병’으로 부른다. 본고에서는 홍영기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태인의병’이라 하겠다. 홍영기, 2004,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155쪽

2) 박민영, 2009, 『한말중기의병』,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9쪽

진위대(鎭衛隊)의 개입으로 순창에서 강제 해산되었다. 활동 기간이 10여 일에 불과했지만, 1,000여 명이 가담한 큰 규모의 의병활동으로서 항일 의병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태인의병은 대한제국기 전북의 의병활동에 기폭제가 되어 이후 전라북도는 의병의 중요한 거점지역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1907년(고종 44) 이후에는 호남의병이 전국 의병을 주도하게 되었다.³⁾

또한 태인의병이 일어나기 전 양반주도의 의병운동은 상소문을 올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강했었다. 태인의병도 그러한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무장투쟁을 강화시켜 후기의병의 방향을 제시해준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점이다.⁴⁾

이 때문에 태인의병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활발하였다. 태인의병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익현과 임병찬의 일생과 사상에 대한 연구,⁵⁾ 태인의병의 활동과 의병부대의 성격에 관한 연구,⁶⁾ 태인의병에 가담한 인물과 그들의 행적⁷⁾ 등이다.

-
- 3) 1907년 이후 호남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강제천(姜在天)·고광순(高光洵)·김동신(金東臣)·문태서(文泰瑞)·백낙구(白樂九)·양회일(梁會一)·이석용(李錫庸)·이항선(李恒善) 등이 있다. 전라남도 경무과에서 작성한 일본 측의 자료인 『전남폭도사』, 1913, 21~22쪽을 보더라도 태인의병의 영향으로 호남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
- 4) 홍영기, 1997, 「한말 태인의병의 활동과 영향」, 『전남사학』 제11집, 420쪽
- 5) 홍순욱, 1969, 「면암 최익현의 위정척사론에 대하여」, 『대구사학』 1호; 홍순창, 1970, 「개화기에 있어서의 한국인의 일본관-勉庵과 重菴의 척화론을 중심으로-」, 『史叢』 17호; 김용구, 1980, 「崔益鉉의 衛正斥邪論과 義兵活動小考」, 『慶熙史學』 6·7·8; 최근무, 1984, 「遯軒·壺亭의 對馬島日記에 관한 研究」, 『전주교대논문집』 20호; 旗田巍, 1985, 「義兵將崔益鉉の生涯」, 『玄岩 申國柱博士 韓國學論叢』; 신규수, 1987, 「韓末 民族運動의 一 研究-遯軒 林炳瓚을 中心으로-」, 『圓佛敎思想』 10·11합집; 1989, 「한말위정척사운동 소고-勉庵·遯軒을 中心으로-」, 『정신개벽』 7·8호 합집; 李炫熙, 2001, 「義兵將 勉菴 崔益鉉 研究: 生涯와 愛國活動」, 『성신여대 연구논문집』 37; 강길원, 2005, 「돈헌 임병찬의 생애와 반일투쟁」, 『전북사학』 28호; 김종수, 2014, 「돈헌 임병찬의 생애와 복벽운동」, 『전북사학』 44호
- 6) 최근무, 1980, 「乙巳·庚戌間(1905-10) 義兵戰爭에 關한 研究-全北地方을 中心으로-」, 『全州教育大學論文集』 16호; 홍순권, 1989, 「을사조약 이후 호남지역 의병운동의 발전과 의병장들의 성격」, 『韓國學報』 57호; 홍영기, 1997, 「한말 泰仁義兵의 활동과 영향」, 『역사학연구』 11호; 신규수, 2005, 「돈헌 임병찬의 구국운동」, 『역사와 사회』 34호; 김상기, 2011, 「崔益鉉의 定山 移住와 泰仁義兵」, 『충청문화연구』 7호; 홍영기, 2012, 「돈헌 임병찬과 거문도 유배생활」, 『해양문화연구』 7·8합집
- 7) 홍순욱, 1981, 「淳昌十二義士에 관한 小考」, 『嶺南史學』 10·11합집; 안성은, 2018, 「습재(習齋) 최제학(崔濟學)의 생애와 항일활동」, 전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김건우, 2018, 「한말 전북지역 의병의 인적 관계망-습재 최제학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52호

기존의 태인의병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의병장인 최익현과 임병찬에 집중되어 있고, 그들 이외에 실제로 태인의병에 가담하여 조력했던 인물에 대한 연구는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성과가 활발하지 않다.⁸⁾ 따라서 태인의병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여 조력했던 인물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야만 태인의병에 대한 총체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본고는 면암 최익현의 최측근에서 조력했던 인물인 전북 진안 출신 유생 습재 최제학의 생애와 항일활동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최제학은 ‘순창 12의사’ 중 한 명으로, 20세에 최익현과 사승 관계를 맺은 후 항일의식이 고취되었다. 태인의병이 결성되기 전부터 최익현의 최측근으로 있으면서 의병활동에 중요한 편지 전달, 군수품 마련, 의병 모집 등의 일을 수행하였고, 최익현이 순국한 이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항일활동에 전력하였다.

그의 기록물인 『습재실기(習齋實紀)』는 태인의병 활동의 전말이 소상히 기재되어 있어⁹⁾ 연구자들이 중요 자료로 빈번하게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저자인 최제학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그의 기록물인 『습재실기』를 통해 최제학의 생애와 태인의병 전후의 항일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고는 기존의 최익현과 임병찬에게 집중되어 있던 선행 연구에서 벗어나 대한제국기 전북지역 의병사에 적잖은 역할을 한 최제학을 조명함으로써 소외된 이들의 항일활동을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습재 최제학과 면암 최익현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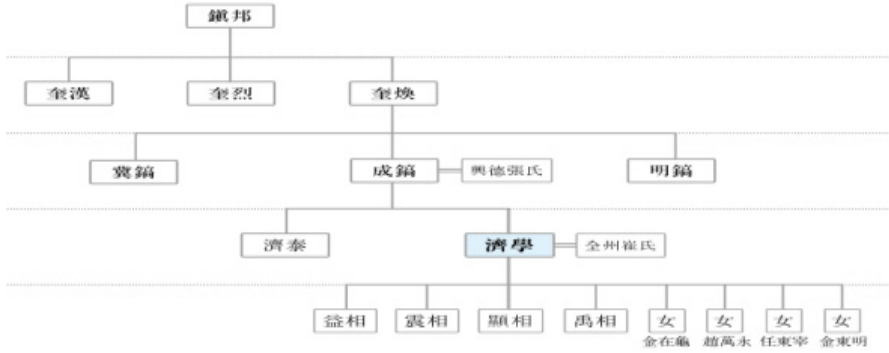
최제학의 자는 중열(仲悅), 호는 습재(習齋),¹⁰⁾ 본관은 탐진(耽津)이다. 1882년(고종 19) 3월 17일에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목동(睦洞)에서 부친

8) 홍순욱 역시 태인의병의 주축 멤버인 ‘순창 12의사’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그 이유로 ‘순창 12의사’에 대한 기록이 아직 발굴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홍순욱, 1981, 앞의 논문, 1쪽

9) 『습재실기』는 1959년 최제학이 사망하고 4년이 지난 1963년에 종손(從孫) 최병섭(崔炳燮)의 주도로 2권 1책으로 간행되었다. 석판본으로 12행에 매 행 27자로 되어 있으며, 반곽(半郭)은 22.4×14.7(cm), 판심(版心)은 상흑어미(上黑魚尾)이다. 전주대학교 도서관(OM 810.819 최446 入)에 소장되어 있다. 1971년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독립운동사자료집』 제2집에 ‘면암선생창의전말(勉庵先生倡義顛末)’; ‘반구일기(返樞日記)’라는 제목으로 일부분이 번역되어 있다. 본래 제목은 ‘乙丙學義日記’; ‘마관반구일기(馬關返樞日記)’이다.

10) ‘습재’라는 호는 최제학이 7세 때부터 수학했던 스승 불류재(不流齋) 이기회(李起晦)가 지어준 것이다. 이기회는 1854년(철종 5)생으로, 참봉(參奉)을 지냈다.

지은(芝隱) 최성호(崔成鎬)¹¹⁾와 모친 흥덕 장씨(興德張氏)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최제학의 가계도는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습재 최제학의 가계도

최제학은 7세 때인 1888년(고종 25)에 모친 장씨가 죽었고, 6년 뒤인 1894년(고종 31) 8월 4일에 진안까지 침입해온 동학 농민군 김개남(金開南)의 부대에 의해 부친 최성호가 사망했다. 이로 인해 최제학의 만형 최제태(崔濟泰)¹²⁾가 가장(家長) 역할을 했다.

최제학은 부친의 상례를 치르고 난 후인 1896년(고종 33)에 당대 명성이 높았던 면암 최익현¹³⁾을 찾아뵙고 인사를 올렸다. 그 후 만형 최제태의 권유로 20세가 되던 1901년(고종 38) 8월 13일에 최익현에게 집지(執贄)하고 정식 문인이 되었다.¹⁴⁾ 당시 최익현은 충청도 정산(定山, 현 청양군) 장구동(藏龜洞)으

11) 부친 최성호는 만형 최기호(崔冀鎬), 막내 최명호(崔明鎬)와 함께 효자로 이름났다. 그 삼형제는 우애 있게 살기를 다짐하는 의미로, 1839년(헌종 5) 진안 목동에 삼우당(三友堂)을 세웠다. 삼우당은 최익현이 호남으로 내려올 당시 신변을 감추기 위해 임시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다.

12) 최제태(1863~?)의 자는 용여(庸汝), 호는 설정(雪汀)이다. 그는 태인의병 당시 최제학과 함께 전장(田庄)을 헐값으로 팔아 군수품을 마련하여 태인의병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최익현이 일본군 사령부에 구금되었을 때와 대마도로 유배되었을 때에 가서 문후(問候)했다. 조석일(曹錫日) 編, 1967, 『채미연원록(藍薇淵源錄)』(국립중앙도서관, 古2513-260-2) 15쪽 참조.

13) 당시 최익현은 위정척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전국적인 명망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1895년(고종 32) 단발령이 내려지자 성묘에 나아가 통곡하면서 단발을 반대하였고, 1898년(고종 35)에는 의정부 찬정, 궁내부 특진관에 임명되었으나 사직하고 ‘시무 12조’를 올렸다. 이처럼 그는 고위 관직에 올라 상소 활동을 통해 위정척사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김상기, 2011, 『최익현의 정산 이주와 태인의병』, 『충청문화연구』 7호, 27~29쪽

14) 『습재실기』, 書簡拾遺, 『上勉庵先生』, 4쪽

로 거처를 옮겼는데 호서지역의 선비들이 그를 찾아가 문인이 되었고,¹⁵⁾ 최제학도 이 시기에 최익현과 사승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최익현은 최제학을 문인으로 받아들인 후 그의 좋은 자질과 가풍을 칭찬하고 학문을 권장하는 글¹⁶⁾과 부친 최성호에 대한 묘표¹⁷⁾를 지어주었으며, 삼우당(三友堂)에 대한 기문¹⁸⁾도 써주었다.

24세가 되던 1905년 1월 29일, 최제학은 작은아버지 최기호와 스승 이기회의 편지를 최익현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울 석동(錫洞: 현 두석동(豆錫洞))으로 출발했다. 당시 최익현은 경기도 관찰사의 직임을 사직하고, 동시에 친일파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릴 계획으로 친족 최만식(崔萬植)¹⁹⁾의 집이 있는 석동에 있었다. 동년 2월 6일에 최제학은 석동에 도착했는데, 일본을 배척하는 상소를 올린 일로 인해 최익현이 일본군들에게 곤욕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²⁰⁾ 그 후 10월 19일에는 죽인(族人) 최치학(崔致鶴)을 최익현의 문인계(門人契)에 참여시키기 위해 정산 장구동에 있는 최익현을 찾아갔는데, 이때 을사늑약 체결 소식과 을사늑약 체결에 항거하여 애국지사들이 자결 순국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²¹⁾

-
- 15) 최익현은 「丙寅擬疏(1866)」를 비롯하여 「持斧伏闕斥和議疏(1876)」, 「請討逆復衣制疏(1895)」 등 수많은 상소문을 국왕에게 올려 상소 사건의 파문으로 제주도와 흑산도에 유배되기도 하였으며, 1905년에는 일제가 그를 정산에 주거를 제한시켰다. 최익현이 지속적으로 펼치던 상소 운동이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호남지역 유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호남의 유생들이 그를 추종하였다. 홍영기, 1977, 「한말 泰仁義兵의 활동과 영향」, 『역사학연구』 11호, 401~402쪽
- 16) “見其天姿洵美, 重厚溫雅, 無一毫閒放浮雜意, 可知其家庭之間, 薰染有素, 又如見甘藪之始瀟, 靈芝之始茁, 祝其沛然而達, 傑然而秀也.” 『勉菴集』, 제16권, 「書驢崔仲說」. 이 내용은 『습재실기』, 「遺事」에도 보인다. 단, 두 자료를 비교해보면 몇 글자의 차이가 있는데, 『면암집』의 ‘호한방부잡의(毫閒放浮雜意)’는 『습재실기』에 ‘호한방지의(豪閑放之意)’로 되어 있고, 『면암집』의 ‘흙(滫)’은 『습재실기』에 ‘웅(滫)’으로 되어 있다.
- 17) 『면암집』, 제33권, 「芝隱崔君墓表」.
- 18) 『면암집』, 제21권, 「三友堂記」.
- 19) 최만식의 자는 운선(雲先), 호는 심암(心菴)이다. 그는 최익현이 일본군 사령부에 구금되었을 때 어느 때고 정성스레 음식을 올렸으며, 의사(義士)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잘 곳을 마련하여 그들을 대우하였다고 한다. “先生前後入司令時, 不避風雨寒暑, 致力於朝夕支供, 且義士家族之來京者, 莫不館而待之.” 조석일 편, 1967, 앞의 책, 19쪽
- 20) 최익현은 2월 6일 명동에 위치한 일본군 사령부에 구금된 것을 시작으로, 두 차례 더 일본군들에게 강제 압송되었다. 이때 최제학은 일본군들에게 온갖 폭행과 수모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최익현이 본가 정산 장구동에 도착할 때까지 동행하며 시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습재실기』, 잡저, 「乙巳赴京日記」에 보인다.
- 21) 을사늑약을 계기로 자결 순국한 인물에 대해서는 ‘이지은, 2016, 「경술국치기 전북지역 자정순국자에 대한 검토」, 전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9~10쪽’에 자세히 보인다.

이처럼 최제학은 1901년 8월, 최익현의 문인이 된 후 시대적 상황을 목도(目睹)하여 자연스레 항일의식이 고취되었다. 이로 인해 최제학은 25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경제적 기반²²⁾을 바탕으로 최익현의 최측근에서 태인의병에 가담했다.

3. 태인의병 활동

1) 태인의병 준비

1905년(고종 42) 11월 17일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이에 항거하는 애국지사들이 자결 순국하자, 1905년 12월 3일 노사학과의 애산(艾山) 정재규(鄭載圭)²³⁾는 최익현을 찾아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상의했다. 최익현은 12월 25일에 노성(魯城) 궐리사(闕里祠)에서 유회(儒會)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포고문(布告文)²⁴⁾을 작성했다.

최익현은 최제학과 유도균(柳道均)을 광주로 보내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에게 포고문을 전달하도록 했다. 이에 최제학은 12월 8일 광주로 출발했다. 그는 동월 14일에 광주 중흥동(中興洞)에 도착하여 포고문을 전달했지만, 기우만은 동학군의 난 이후 사기(士氣)가 꺾였으며, 자신 역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노성 궐리사 유회에 대한 참여를 거절했다.²⁵⁾ 그런데 기우만과 같이 있던 정시해(鄭時海)²⁶⁾가 궐리사 유회에 참여를 희망하여 12월 17일 최제학은 정시해와 함께 중흥동을 떠나 동월 20일에 자신의 본가인 진안 목동에 도착했다. 본가에 도착한 최제학은 궐리사 유회에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정시해와 친족 관계인 장수 군수 정휴탁(鄭休鐸)에게 편지²⁷⁾를 보내기도 하였다.

22) 최제학의 집안에서 해마다 수조(收租)한 것이 천섬(千石) 가까이 될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且産業이 稍饒하여 歲收租近千石이러니…….” 『습재실기』, 「유사」, 1쪽

23) 정재규(1843~1911)의 자는 영오(英五) 또는 후윤(厚允), 호는 노백헌(老柏軒) 또는 애산(艾山)이다.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으로, 1894년 갑오개혁 때 유림들에게 통문을 돌려 의병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였다.

24) 『면암집』, 제16권, 「布告八道士民」.

25) 松沙丈覽畢曰: “此間則丙申以後, 士氣挫折矣. 且脚力圍圍, 何以登程?” 『습재실기』, 잡저, 「을병거의일기」, 23쪽, “雖然, 國家自丙申以後, 士氣挫折.” 『松沙集』, 3권, 「答崔勉菴」.

26) 정시해(1874~1906)의 자는 낙언(樂彦), 호는 일광(一狂)으로, 태인의병 당시 전주·남원 진위대의 총격에 맞아 순국하였다.

최제학은 궐리사 유희에 참여하기 위해 정시해, 유도균 그리고 사촌 형 최제룡(崔濟龍)과 함께 진안에서 출발하여 동월 25일 궐리사에 도착했다. 그때에 인근 지역 유생 약 300여 명이 모였지만 오기를 기대했던 선비들이 모이지 않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최익현은 서고(誓告)²⁷⁾를 지어 각 군 향교에 발송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20일에 진위(振威: 현 경기도 평택)에서 모여 대궐에 나아가 호소하자고 결의했지만,²⁹⁾ 일본 측에서 이 사실을 탐지하고 군사를 배치하여 실행하지 못하였다.³⁰⁾

최제학은 궐리사 유희 3일 후인 12월 28일, 고향 친구인 장진욱(張鎭旭)³¹⁾에게 호남의 거사에 힘을 보태 달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당장 긴급한 사항을 별지로 동봉하고, 자기 집안과 함께 비밀리에 도모하자고 부탁했다.³²⁾ 그 후 최제학은 장진욱과 최익현을 차례로 만나,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군량미를 마련하는 등의 사안을 논의했다.³³⁾

노성 궐리사에서의 유희와 진위에서의 일이 있는 후 1906년(고종 43) 1월 2일 고석진(高石鎭)은 최익현에게 거의(學義)하자고 요구했다. 이 의견을 받아들인 최익현은 판서 이용원(李容元)·김학진(金鶴鎭), 참판 이성렬(李聖烈)·이남규(李南珪), 면우(旻宇) 곽종석(郭鍾錫), 간재(艮齋) 전우(田愚)에게 편지를 보내 거의(學義)하기를 청했지만 모두 동조하지 않았다.

27) 『습재실기』, 서간습유, 『與鄭太守(休鐸)』, 8~9쪽

28) 『면암집』, 제16권, 『魯城關里祠講會時誓告條約』.

29) “至二十五日 會者三百餘人而意中人이 多不赴하여 不可與計事故로 只得以扶儒道保華脈衛宗國絕讎賊等事로 爲文誓告하고 鱗次叫囂으로 爲約而散이나” 『습재실기』, 『유사』, 4쪽

30) 『면암집』, 부록 제3권, 『연보』(73세).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박민영, 2015, 『곽한소의 생애와 항일투쟁』, 『한국근현대사연구』 74집, 가을호, 80쪽’에 보인다.

31) 장진욱(1866~1934)의 자는 화삼(華三), 호는 호암(壺岩), 본관은 흥성(興城)이다. 1910년 국권이 피탈되자 동지를 규합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손재면(孫在冕), 김정원(金正遠), 최흥중(崔興琮), 최병준(崔炳俊)과 함께 몰래 군자금 모금하다가 경신년(1920)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보석(保釋)으로 출감되었다. 장수향교벽계승람편찬위원회, 1975, 『碧溪勝覽』, 169쪽

32) 호남의 거사는 바로 최익현이 호남으로 내려간 이후 의병 활동에 조력하려는 일을 말한 듯하다. 이를 통해 최익현이 호남으로 내려오기 두 달 전인 궐리사 유희 직후부터 최제학은 의병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二十八日丙寅, 余寄書于張壺巖鎭旭, 託以南中事.” 『습재실기』, 잡저, 『을사부경일기』 26쪽, “南中事, 兄與弟當同心戮力, 而別紙密封事項, 甚緊且急, 望兄與鄙家人, 暗裏圖成若何.” 『습재실기』, 서간습유, 『答張華三(鎭旭)』, 10쪽

33) “二十六日甲午, 與張鎭旭, 議放田庄辦糶糧等事.”, “初六日癸酉, 張鎭旭來訪, 與余往沙橋, 謁先生, 因論放家產辦軍糧等事.” 『습재실기』, 잡저, 『을병거의일기』, 27쪽, 29쪽

이에 최제학은 태인 종석산(鍾石山)에서 시묘살이를 하던 임병찬을 최익현에게 추천하고 자신이 직접 만나보겠다고 청했다.³⁴⁾ 최익현은 곧바로 태인의 임병찬, 운봉(雲峯)의 박봉양(朴鳳陽), 전주의 최상규(崔相奎)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최제학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1906년 1월 6일 최제학은 최상규에게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주 완동(完東)으로 출발했지만 출타 중이었던 최상규를 만나지 못했다. 운봉의 박봉양에게 보내는 편지는 지곡(紙谷)에 사는 친구인 이병하(李炳夏)가 전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조카 최은상(崔殷相)³⁵⁾에게 동행하여 전달하도록 했다. 그리고 자신은 임병찬을 만나기 위해 동월 18일에 종질 최경상(崔璟相), 장진옥과 함께 태인으로 향했다.

다음날 태인에 도착한 최제학은 임병찬을 만나 최익현의 편지를 전달하였고, 1월 20일에 임병찬이 거의에 동의하겠다는 답서를 받았다. 한편 최제학은, 당시 상해에 있던 민영익(閔泳翊)을 통해 청나라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하자는 임병찬의 계획을 최익현에게 보고하고, 자신이 상해에 다녀오겠다고 청했지만³⁶⁾ 최익현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³⁷⁾

최제학은 2월 13일 다시 정산 장구동에 도착하여 최익현이 거의를 위해 호남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³⁸⁾ 이에 2월 15일 최제학은 최익현의 호남행 일시를 나타내는 은어로 된 편지³⁹⁾를 임병찬에게 보냈다. 최익현은 일

34) 濟學稟于先生曰: “小子熟聞, 林樂安炳瓚有才智可以須緩急矣. 願一往試之.” 『습재실기』, 잡저, 『을사부경일기』, 26쪽

35) 최은상은 태인의병 전후로 최제학과 동행하여 최익현을 자주 방문하였고, 태인의병이 좌절된 이후 여러 의사(義士)들이 일본군 사령부에 수감되자 곧바로 상경하여 석방을 주선하는 데에 노력을 다했다. 일제강점기에 『동맹록(同盟錄)』을 인쇄 배포하기도 하였다. “淳昌學義時, 從軍, 摠管諸務, 多効勞, 諸義士, 押囚司令部也. 即上京周旋釋放, 謁盡心力, 竟不諧而還, 倭政時, 印布同盟錄而旋發露, 潛跡日本, 解放後歸國.” 조석일 편, 1967, 앞의 책, 31쪽

36) “小子出入門下, 已有年矣, 曷敢以涉萬里他國爲難乎? 死生命也, 固不足介意, 而設或投身於鱷浪之中, 不猶愈於苟, 且偷生而甘作驢人之役耶?” 『습재실기』, 서간습유, 『상면암선생』, 6쪽

37) “上海事, 想非良圖, 姑且停止, 可也.” 『습재실기』, 잡저, 『을병거의일기』, 27쪽

38) 최제학이 종석산에 있을 당시 호서지방 선비 안병찬(安秉瓚)이 최익현을 찾아와 최익현을 추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최익현은 이미 참판 민종식(閔宗植)이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호서에서 의병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접었다. 이를 계기로 최익현은 호남으로 내려가 의병을 일으켜 호서의 인사와 호응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홍영기, 2004, 앞의 책, 158쪽

39) “不須煩說而槩達其要矣. 近日物價僅依教付呈于群港便, 以此下諒焉. 到于此處則先獲我心, 欣喜萬千, 而彼處退限則少俟四五日後發程爲計, 以此下諒, 若何? 餘不備白. -此書隱語.” 『습재실기』, 잡저, 『을병거의일기』, 28쪽. 이 내용은 ‘『遜軒遺稿』, 권6, 『倡義日記』, 9쪽’에도 그대로 실려 있다. 임병찬은 동월 18일 최제학의 편지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

본군의 감시와 단속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⁴⁰) 최익현의 호남행을 비밀리에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73세였던 최익현이 정산에서부터 호남으로 내려와 임병찬을 만나기까지는 제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이때에 최제학이 최익현의 곁에서 경로 선정과 거처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⁴¹⁾

최제학은 최익현을 모시고 2월 21일 정산에서 출발하여 홍산(鴻山) 행화정(杏花亭), 임천(林川) 남당진(南塘津), 김제(金堤) 금평(金坪)을 거쳐 동월 27일에 태인 황대곡(黃大谷)⁴²⁾에 도착했다. 2월 30일 마침내 최익현과 임병찬의 첫 만남이 성사되었다. 첫 만남에서 최익현은 임병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래전부터 그대의 훌륭한 명성을 들어왔는데, 한 번도 만날 길이 없었구려. 지난번에 최군 편에 내게 한 말을 듣고 답한 편지를 보니, 의리가 묵묵히 나의 뜻과 맞고 서로의 마음이 들어맞았음을 알았소. 그리하여 몸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으니, 귀하와 죽을힘을 다해 대사(大事)를 완수해 봅시다!⁴³⁾

위의 사실을 통해 태인의병이 결성되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최익현과 임병찬의 만남이 최제학의 주선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최제학은 그 후 거의에 대한 기밀이 누설될까를 염려하여 3월 8일 임실의 상이암(上耳庵)으로 최익현의 거처를 옮겼다. 상이암에서 15일 동안 머무르다가 동월 25일에 인적이 드문 진안 삼우당으로 다시 거처를 옮겼다. 이때에 사절 최경상과 고향 친구인 장진욱으로 하여금 서로 교대하여 최익현을 보필하게 하였다.⁴⁴⁾ 최제학 자신은 최학엽(崔學燁), 김태원(金泰元), 유종규(柳鍾奎), 권재일(權在 一), 이용길(李容吉), 이정의(李禎義)와 함께 종석산으로 가서 임병찬과

40) “日兵謂次胤永福曰，大監雖有十里行次，必通告于兵站，否則同罪，勿泛勿泛。” 『습재실기』, 잡저, 『을사부경일기』, 10쪽, “前判書崔益鉉，起兵于湖南，益鉉自昨冬上疏後，歸定山，欲學義，倭人訶其氣色，派兵看守，益鉉稱以病篤，晝臥于內，乘倭少懈，微服出門，會林炳瓚于泰仁。” 『梅泉野錄』, 제5권, 『光武十年 丙午』.

41) 태인의병 해산 이후 최익현이 일본군 사령부에 구금되었을 때에 ‘순창 12의사’를 생각하며 각자에 대해 시를 지어주었다. 최제학에게 지어준 ‘호남에서 앞길 헤맬 때, 가며 가며 자네에게 거처 물었지 [南國迷前路 行行問子居]’라는 시는 이때의 상황을 대변해준다. 『면암집』, 제2권, 『日獄中默會』.

42) 황대곡은 최제학의 조부 최규환(崔奎煥)의 분암(墳庵)이 있던 곳이다. 『습재실기』, 잡저, 『을병거의일기』, 28쪽 참조. 후일에 최규환의 묘소는 구례군 토지면(土旨面) 농평(弄坪)으로 옮겨졌다. 탐진최씨족보편찬위원회, 1988, 『耽津崔氏族譜』, 회상사

43) “久聞聲華，無緣一會。頃因崔生使，聞所傳之言，見所答之書，義理默契，肝膽相照。顧此老身不遠而來，惟令監相與戮力，共濟大事焉!” 『습재실기』, 잡저, 『을병거의일기』, 28쪽

44) “時에 府君이 與張壺巖鎮旭으로 更番侍衛于三友堂이라” 『습재실기』, 『유사』, 5쪽

군사모집 및 거의에 관한 사항을 협의했다.

그 후 4월 22일에 최익현은 영호남 유생들에게 의병을 일으켜 국난을 회복하자고 제안했지만 모두 따르지 않자 손종궁(孫鍾弓), 이용길과 함께 윤4월 6일에 거의하기로 확정했다. 최제학은 이 사실을 임병찬에게 알리기 위해 동월 25일 최익현을 모시고 종석산으로 향했다. 그러나 임병찬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가을에 거의하자는 의견을 표명했다.⁴⁵⁾ 이에 최익현은 당장 국난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극력 주장하여 마침내 윤4월 13일 태인 무성서원에서 거의 할 것을 확정했다.

날짜가 확정되자 윤4월 8일 최제학은 최익현을 호위하여 담양 용추사(龍湫寺)로 갔다. 용추사에 도착한 최익현은 격문을 작성하여 강진·광양·낙안·돌산·보성·순천·여수·완도·해남·홍양 등 각 고을에 전파했다.⁴⁶⁾ 윤4월 10일 격문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의병에 지원하였다. 당시 『동맹록(同盟錄)』⁴⁷⁾에 서명한 사람이 총 112명이었는데 그중 진안의 탐진 최씨가 14명으로, 최제학이 집안 사람들을 태인의병에 참여하도록 주도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최제학은 최익현의 최측근에서 태인의병이 결성되기까지의 준비과정에서 편지 전달 및 최익현의 처소와 행선지 일정을 담당하며 중요한 역할을 도맡았다.

2) 태인의병 활동

윤4월 12일 담양 용추사에서 출발한 최익현과 최제학 일행은 순창 피노리(皮老里)에서 유숙하고 윤4월 13일 태인의 무성서원에 도착했다. 당시 최제학은 태인의병의 진군 경로와 상황을 날짜별로 자세히 서술하였는데, 『습재실기』, 『을병거의일기(乙丙學義日記)』⁴⁸⁾를 근거하여 그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5) 조우식의 『省菴集』, 권6 雜書, 『玉川日記』 4월 7일자 기록을 보면, 최익현은 호남으로 내려온 뒤 수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제자들에게 섭섭함을 표출하면서 시일만 지체하는 임병찬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서도 태인의병의 거의 날짜에 대해 최익현과 임병찬의 생각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46) 홍영기는 주로 순천을 비롯한 전남의 동부지역과 서남부의 연해 도서지역에 격문을 발송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그 이유로, 용추사에 모인 노사학파의 입장을 배려하여 노사학파의 영향이 비교적 적게 미치는 지역에 격문을 전달한 것으로 보았다. 홍영기, 2004, 앞의 책, 168쪽

47) 『습재실기』, 잡저, 『을병거의일기』, 35~40쪽. 이 『동맹록』은 『습재실기』에만 보이는 자료이다. 진안의 탐진 최씨가에서는 이 『동맹록』을 판각해서 배포하기도 하였다. “倭政時, 印布同盟錄而旋發露.” 조석일 편, 1967, 앞의 책, 31쪽

48) 『을병거의일기』는 1905년 10월 19일부터 1906년 8월 28일까지의 기록으로, 태인의병의 전개 과정과 상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림 2〉 태인의병 진군 경로⁴⁹⁾

윤4월 13일 태인의 무성서원에 도착하자 최익현은 강회를 열고, 일본이 그동안 한국에서 자행한 죄상을 16가지 조항으로 나누어 성토했다.⁵⁰⁾ 태인의병 부대는 태인향교에서 하룻밤을 주둔하고 다음날 윤4월 14일에 정읍으로 진군했다. 이들은 다시 행군하여 내장사로 들어가 머물렀는데, 이때에 고용진(高龍鎭, 고석진의 형)이 강종회(姜鍾會)와 최제학의 사위 김재구⁵¹⁾와 함께 포수 30여 명을 데리고 합류했다. 이로써 태인의병은 약 300명으로 확장되었다.

윤4월 15일 아침 태인의병은 내장사에서 손종궁의 지휘하에 군사훈련을 하였고, 30리를 이동하여 순창 구암사(龜巖寺)에 주둔하였다. 구암사는 지세가 험고하여 군사를 주둔시킬 만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발(步撥)이 와서 일본군들이 정읍까지 따라온 사실을 보고하자, 다음날 윤4월 16일 순창읍으로 들어갔다. 순창읍으로 들어가자 군수 이건용(李建鎔) 및 수백 명이 마중 나왔다. 이날 최익현은 순창읍 수성장(守城將)을 불러 총과 대포를 거두어들이게 하고, 좌·우익 및 전·후봉의 대장과 소모장(召募將) 및 여러 종사관을 배치하였는

49) 안성은, 2018, 앞의 논문, 21쪽 재인용.

50) 『면암집』 제16권 『寄日本政府-丙午閏四月七日-』. 그 죄목은 경제·문화·사회·정치 제반 영역에 걸친 일본의 전방위적 국권침탈 행위를 맹렬하게 성토했던 것이다.

51) 김재구는 최제학의 첫 사위로, 자는 준서(準瑞), 호는 만회(晩悔)이다. 『습재실기』, 『유사』를 살펴보면, 김재구는 1920년 장인인 최제학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일본인에게 붙잡혀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다.

데, 최제학은 소모장으로 서임되었다.⁵²⁾

윤4월 17일 임현주(林顯周)는 남원의 운봉(雲峰)으로 진군할 것을 주장하고 기준도(奇俊度)는 곡성(谷城)으로 향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기준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곡성 관아에서 유숙하였다. 다음날 아침 곡성의 인사들에게 무기조달과 군수품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태인의병 부대는 중진원(中津院)을 건너 남원으로 향하려 했으나 남원은 방비가 철저하여 진군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 마침 삼방(三坊) 포수⁵³⁾ 100여 명이 의병에 합류하기 위해 귀암사(龜巖寺)와 백양사(白羊寺)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순창으로 되돌아갔다. 이때에 태인의병은 600명으로 늘어났다.

윤4월 19일 최익현이 순창 관아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병찬을 시켜 중군을 이끌고 습격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순창 군수 이건용이 일본군을 끌어들여 의병을 모해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익현이 이 건용을 처벌하려 했지만, 임병찬의 만류와 이건용의 사죄를 받아들여 그를 선봉장으로 삼았다. 순창으로 회군한 태인의병 부대는 9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윤4월 20일 광주 관찰사 이도재(李道宰)가 의병을 모두 해산하라는 칙지를 보냈지만, 최익현은 대응하지 않았다.⁵⁴⁾ 얼마 후 2개 부대가 서쪽 산과 대동산(大同山)에 진을 쳐서 태인의병 부대는 4면에서 적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최익현이 즉시 나가 싸우려 했으나 2개 부대가 일본군이 아닌 전주·남원의 진위대라는 사실을 알고는 의병을 해산하도록 명령했다.⁵⁵⁾

일본 측 자료를 살펴보면, “태인의병이 최대 약 450명에 달하였으며 곡성에서 횡행하여 관아를 습격하고 세금을 약탈하며 총기를 빼앗고 구치자를 석방하는 등 횡포를 자행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태인의병이 봉기하자 일본 측에서는 전주경무고문지부(全州警務顧問支部)의 경찰관을 파견하여 수뇌부를

52) 『습재실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문달환의 『遜齋集』, 권4, 『丙午日記』에는 정시해가 순국하기 직전에 최제학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죽을 적에 최제학을 불러 말하기를, ‘네가 내게 포군(砲軍) 30여 명을 주었더라면 내가 왜적 놈들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네가 끝내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한 명의 왜놈도 죽이지 못하고 헛되이 죽는 구나. 이것이 나의 크나큰 한이다.’ [死且呼崔濟學曰謂: 汝給我砲軍三十名, 則吾當殺倭, 汝終勒持, 故吾不能殺一倭而徒死. 是予大恨.]” 이를 통해서도 최제학이 태인의병 당시 소모장으로서 했던 역할을 알 수 있다.

53) “郡北回文山中有大聚落曰北三坊, 崇岡複嶂, 民以銃獵爲生, 號曰山砲, 可百許人.” 『拜軒集』, 권2, 『同義錄』.

54) 畧曰: “某已上疏, 陳達學義之由, 第當承批耳. 進退有非封疆之臣所可指揮也.” 『습재실기』, 잡저, 『을병거의일기』, 47쪽

55) 已而斥埃來報曰: “兩隊俱非倭賊, 是全州·南原兩鎮衛隊也, 我不願同族相殘, 汝等即刻解散.” 『습재실기』, 잡저, 『을병거의일기』, 47쪽

잡으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일본과 대한제국 경찰관 9명을 순창으로 파견하여 그들을 뒤쫓아 추격하다가 도리어 의병들에게 포위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태인의병이 곡성에서 순창으로 돌아오는 시기에 일본 측은 6월 11일 전주·남원 진위대를 풀어 전주·남원·광주 방면의 요로를 차단하고 순창을 포위하여 한나절 만에 ‘폭도’들이 전원 투항하도록 하였다.”는 보고가 있다.⁵⁶⁾

이날 오후 8시경에 관병의 발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정시해가 탄환에 맞아 순국했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최익현은 “여기는 사지(死地)이니 부모나 처자가 있는 자는 모두 떠나라.”⁵⁷⁾라 하였다. 그러나 최익현 곁을 떠나지 않고 소위 ‘순창 12의사’로 불리는 12명인 임병찬(林炳瓚)·최제학(崔濟學)·고석진(高碩鎭)·김기술(金箕述)·문달환(文達煥)·임현주(林顯周)·유종규(柳鍾奎)·조우식(趙愚植)·조영선(趙泳善)·나기덕(羅基德)·이용길(李容吉)·유해용(柳海鎔)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윤4월 23일 전주 진위대 소대장 김희진(金熙鎭)이 이들을 서울로 압송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일본군이 이들을 모두 끌어내어 압송하였다. 이로써 태인의병은 거병한 지 10일 만에 해산되었다.

태인의병은 이렇게 열흘 만에 종식되었지만, 최제학은 태인의병 준비부터 실제 전투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최제학의 종손(從孫) 최병섭(崔炳燮)이 쓴 『채미연원록(菴薇淵源錄)』⁵⁸⁾의 발문⁵⁹⁾에도 나와 있듯이 일가붙이를 적극 참여시켜 태인의병에 끼친 영향이 컸다.

56) 국사편찬위원회, 1971, 『독립운동사자료집』, 제3집, 『조선폭도토벌지』, 678쪽 참조.

57) 先生顯謂左右曰: “此死地也, 有父母妻子者, 皆去.” 『습재실기』, 잡저, 『을병거의일기』, 47쪽

58) 『채미연원록』은 최익현의 계보와 사승 관계 및 문인의 명단을 수록한 책자로, 총 2,830명의 인적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채미(菴薇)’라는 말은 최익현이 태어난 경기도 포천군 가채리(嘉蔴里)와 1900년에 이거한 정산(定山)의 미겔산(薇蔴山)에서 한 글자씩 따서 붙인 것이다. 서문은 1967년에 김동윤(金潤東)이, 발문은 1968년에 최제학의 종손 최병섭이 썼다.

59) “순창(淳昌) 의병 전투에 나[최병섭]의 종조(從祖) 형제 이외에도 우리 집안 아홉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하였다. 어떤 분은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미를 마련했으며, 어떤 분은 사방 각처에 격문을 전달하면서 사지를 넘나들었으며, 어떤 분은 깊은 산속과 궁벽진 곳에서 면암 선생님을 모시며 침식을 마련했고, 어떤 분은 대마도에 문후하여 각자 정성을 다하였다……. [淳昌之役, 炳燮從祖昆季以外一門九人, 始終協贊, 或募軍峙糧, 或傳檄四方, 足踏虎窟, 或倍先生於深山僻地, 幹其寢食, 或問候於馬島, 各盡其誠.]” 조석일 편, 1967, 앞의 책, 『跋』.

4. 태인의병 해산과 그 이후 항일활동

1) 구금과 스승 최익현의 죽음

윤4월 23일 최익현과 이른바 ‘순창 12의사’는 일본군에게 끌려 전주 진위영(鎭衛營)에 도착했다. 그리고 4일 후인 동월 27일에 명동에 위치한 일본군 사령부에 도착했다. 최제학은 윤4월 29일부터 이틀간 취조관 히라타 지로우 [平田次郎] 60)와 헌병대장 코야마 미키 [小山三己]에게 취조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61)

(윤4월 29일 취조내용)

(취조관) “네가 최익현을 따라 의병을 일으킨 것은 무슨 까닭이냐?”

(최제학) “너희들이 을미년(1895)에 우리 국모를 시해하고 을사년(1905)에 우리 임금을 협박하여 우리 강토를 빼앗고 삼강오륜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나는 스승님을 모시고 군사를 일으켜 너희 원수 놈들을 섬멸해서 우리 민족의 원한을 깨끗이 씻으려는 것이다.”

(취조관) “너희들 13명이 죽음을 다짐하고 공모했느냐?”

(최제학) “그렇다.”

(취조관) “누가 주모자냐?”

(최제학) “내가 주모자다. 교활한 오랑캐 놈들아. 어찌 네 칼을 뽑아서 내 목을 치지 않느냐. 내 목은 칠 수 있을지언정 내 뜻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 빨리 나를 죽여라.”

(윤4월30일 취조내용)

(취조관) “김기술·고석진이 주모자가 아니냐?”

(최제학) “어찌 꼭 김기술과 고석진 두 사람만 주모자이겠느냐. 우리 일행 13명이 모두 주모자다.”

.....중략.....

60) 『습재실기』에는 왜추(倭酋) ‘平田次郎’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면암집』, 부록 제4권, 『연보』(74세)를 살펴보면, 그는 헌병 소위 ‘히라타 테츠지 [平田鐵次郎]’로 나와 있다.

61) 주요한 심문 내용을 중심으로 원의에 손상되지 않게 재구성하였다. 『습재실기』, 잡저, 『을병거의일기』, 51쪽

- (취조관) “네 스승이 상소할 적에 집필한 자는 누구며, 가져다 바친 자는 누구냐?”
- (최제학) “사람마다 각각 제 임금을 위하고 제 나라를 위하는 법이다. 우리 스승이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 임금께 상소한 것인데 네놈들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 (취조관) “우리가 이미 염탐하여 알고 있다. 협조한 자가 최영설이 아니더냐. 너는 초모관(招募官)이고, 고석진은 참모관(參謀官)이고, 임병찬은 중군장(中軍長)이었다는 사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는데 어째서 바른대로 대지 않느냐?”
- (최제학) “나는 모르는 일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 (취조관) “이용길의 비밀 칙지 사건을 너도 아느냐?”
- (최제학) “모른다.”
- (취조관) “네 스승 최익현도 비밀 칙지가 있다고 하니, 분명 정부 대관(大官)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너는 아느냐?”
- (최제학) “나는 아무리 뼈가 가루가 되어도 결단코 말하지 않겠다.”
- (취조관) “귀하의 스승이 6, 7명의 대관과 내통한다는데 과연 그러한가?”
- (최제학) “6, 7명의 대관이 누구냐?”
- (취조관) “민병한(閔丙漢)·민경식(閔景植)·이봉래(李鳳來)·민형식(閔亨植)·김승민(金昇旻)이다.”
- (최제학) “내가 비록 매를 맞아 죽을지라도 없는 사실은 결단코 말하지 않겠다.”

위에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최제학은 심문을 받는 과정⁶²⁾에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당시에 고문을 받아 심한 상처와 후유증을 얻은 사실이 『유사』에 보인다.⁶³⁾

6월 25일 일본군은 최익현과 이른바 ‘순창 12의사’를 결박해 진고개 [泥峴]에 있는 사령부로 향했다. 그곳에서 일본은 군율위반죄를 적용하여 태인

62) 조영선의 ‘배헌집’, 권2, 『同義錄』에도 최제학의 취조 내용이 보인다. 취조 내용을 보면 최제학은 거의 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겠지만, 최익현을 따라 거의 한 날짜 및 의병의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결코 진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자주 보인다.

63) “공의 척추 아래 뼈 두 마디가 어린애 주먹만큼 뒤틀렸고, 허벅지살이 모두 상처투성이로 살갓이라곤 없을 정도였다. [公의 脊下二骨이 違屈如小兒拳하고 髀上肉이 皆成癩痕하여 無復肌理]” 『습재실기』, 『유사』, 7쪽

의병에 대한 선고를 내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모는 유생들의 형세와 명망을 믿고서 동지들을 규합하여 통감부와 사령부를 꺾박하였으며, 홍주 폭도 민종식(閔宗植)과 맥을 이어 실로 목적인 바가 있으니 마땅히 엄벌에 처할 것이나 정상이 가공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최익현은 대마도 감금 3년, 임병찬은 대마도 감금 2년, 고석진·최제학은 본서(本署) 감금 4개월,⁶⁴⁾ 양재해·이용길·임현주·김기술·문달환·조두식·조영선·유해용·나기덕은 모두 장형(杖刑) 100대에 처하고 석방한다.⁶⁵⁾

6월 27일 최제학은 구금된 상황에서 스승 최익현이 대마도로 압송된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그리고 7월 8일 최익현과 임병찬이 대마도 이즈하라〔嚴原〕에 소재한 일본군 위수영(衛戍營)으로 압송되자 최제학은 스승을 생각하며 3수의 시를 지었다.⁶⁶⁾ 또 당시에 일본군에 고용되어 부역하는 동족을 보고 민족혼을 망각한 자들이라고 개탄하기도 했다.⁶⁷⁾

수감 도중 최익현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10월 25일에 석방되자마자 고석진, 노병희(魯炳熹) 등과 수의를 마련하여 대마도에 있는 최익현을 문후하였다. 동월 7일 최제학과 고석진은 부산으로 돌아와 최익현의 약재를 마련했지만, 11월 17일 최익현이 서거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치상(治喪) 준비에 몰두하였다.

11월 21일 최익현의 영구(靈柩)가 부산 초량(草梁)에 도착하자 최제학은 최익현의 자제, 문인들과 함께 운구(運柩)하여 부산 상무사(商務社)⁶⁸⁾에 안치하였다. 이때에 최익현의 종질 최영설(崔永嵩)은 집례(執禮)를, 족손 최만식(崔萬

64) 최제학의 실제 수감 일자는 태인의병이 해산된 직후인 1906년 윤4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6개월이다. “公自丙午閏四月二十七日，至同年十月二十五日，被囚在京城明洞倭兵司令部。” 『습재실기』, 『수중시초』, 1쪽. 고석진과 최제학은 2통의 편지가 최익현의 상자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의병보다 중형을 받게 되었다. “高石鎮崔濟學，以書簡二張在於丈席箱中，故四月監禁。” 『華隱文集』, 권6, 『丙午學義日記』.

65) 『습재실기』, 잡저, 『을병거의일기』, 53~54쪽

66) 『습재실기』, 수중시초, 『勉庵先生移囚馬關有感』, 『得家信憶勉庵先生』, 『憶勉庵先生』.

67) 『습재실기』, 수중시초, 『시대를 상심하며 [傷時]』, 3쪽

68) 상무사는 영호남의 상류층의 장사꾼들이 상무를 처리하던 곳으로, 무역행위 및 전국 보부상단의 업무도 관장한 기관이다. 사장 이유명(李裕明)과 사무장 김영규(金永圭)는 최익현이 순국하자 모든 사원과 함께 사무를 철폐하고서 그곳을 최익현의 상소(喪所)로 만들었고, 대여(大輿)와 영거(靈車)를 비롯한 모든 장례 물품과 인력을 제공해주었다. 『습재실기』, 『마관반구일기』, 58쪽

植)은 재무를, 노병희는 호상(護喪)을, 최제학과 곽한소(郭漢紹)는 사서(司書)를 맡아 치상에 필요한 물품들을 마련하였다. 다음날 22일에 성복(成服)하고, 23일 정오 무렵 발인을 하고 장지(葬地)인 충남 정산(定山)으로 향하였다.⁶⁹⁾ 14일에 걸친 운구행렬은 12월 7일 정산 장구동(長龜洞)에 도착하였다. 동월 17일 최제학은 제문(70)을 올려 최익현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였다.

이처럼 최제학은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난 후 곧바로 대마도로 가 최익현을 문후하였고, 최익현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 약재를 마련하는 일에 힘썼다. 11월 17일 최익현이 순국하자 고석진과 최익현의 문인들과 함께 치상 준비에 힘을 쏟아부었고, 정산 구동까지 영구를 따르며 사서직을 수행하였다. 최제학은 사서로 있으면서 조객록(弔客錄)·부의록(賻儀錄)·치전록(致奠錄)·가마록(加麻錄)·전부록(傳訃錄)·제문록(祭文錄)·만사록(挽詞錄) 총 7건을 정리하여 정성을 쏟았다.⁷¹⁾

2) 그 이후 항일활동

1907년(고종 44) 4월, 최익현의 장례를 마친 뒤 최제학은 고향 진안으로 돌아왔다. 동년 8월 14일에 정운(鄭潤)⁷²⁾이 최제학을 찾아와 고산(高山) 경천면(庚川面)에 사는 진사 윤자신(尹滋臣)⁷³⁾을 소개하면서 의병을 다시 일으키기를 권유했다.⁷⁴⁾ 이에 최제학은 재거의(再舉義)를 승낙하고서 9월 9일 윤자신과 만나 태인의병 당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여 7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9) 경로는 다음과 같다. 양산(梁山)-김해(金海)-거인리(居仁里)-관장대(官場垜)-벽송정(碧松亭)-창원(昌原)-자여역(自如驛)-창녕읍(昌寧邑)-매산리(梅山里)-현풍읍(玄風邑)-부상여사(扶桑旅舍)-금산(金山)-금천(金泉)시장-봉계(鳳溪)-미륵당(彌勒堂)-옥천(沃川)-송기(松崎)-삼치리(三峙里)-증약역(增若驛) 『습재실기』, 『마관반구일기』, 65~67쪽

70) 『습재실기』, 잡저, 『마관반구일기』, 68~69쪽

71) 『습재실기』, 잡저, 『마관반구일기』, 67쪽. 당시 황현은 최익현의 묘소를 방문하였는데, 조객록(弔客錄)이 4책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특기(特記)하였다. 임형택 역, 2005, 『梅泉野錄』(상)(하), 문학과지성사, 403쪽

72) 정운은 경성 사직동(社稷洞) 사람으로, 최제학이 일본군 사령부에서 석방되었을 당시 최익현의 죽손 최만식(崔萬植)의 집에서 만났던 사람이다. 『습재실기』, 잡저, 『정경회상록』, 70쪽

73) 윤자신의 자는 덕유(德裕)이고, 호는 취석(醉石)이다. 그는 동학 농민군을 방어한 전력 이 있는 인물로, 1907년 당시 가동(家童)과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74) “吾聞高山庚川, 有一志士曰‘尹滋臣’, 掛名蓮榜, 聲聞藉藉. 曾於甲·乙年間, 禦土匪甚有緒, 而家僮武器, 至今保有云, 盍往圖之?” 『습재실기』, 잡저, 『정경회상록』, 70쪽

1. 현임 여산 군수(礪山郡守) 이상천(李相天)을 의병에 참여시켜 동서에서 서로 호응할 것.
2. 고산 구제리(九梯里)에 거주하는 프랑스 선교인을 통해 무기 구입을 확보할 것.
3. 고산지역에서 수조(收租) 하는 목포의 상인 김성규(金聖奎)를 통해 군량을 마련할 것.
4. 평소에 의기가 있는 전임 여산 군수 박항래(朴恒來)를 참여시켜 의병으로 모집할 것.
5. 윤자신이 지역 인사와 가동(家童)을 의병으로 모집 할 것.
6. 고산 화엄사(花巖寺)의 험한 형세를 이용해 의병의 진지(陣地)를 세울 것.
7. 거리가 누설되지 않도록 군대 암호를 지정하고, 일본군의 심문에 철저히 대비할 것.⁷⁵⁾

이상과 같은 계획을 세운 최제학과 윤자신은 박항래·이상천 등을 만나 재거의를 준비했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혀 군량미와 무기를 확보하지 못하자 최제학은 9월 30일에 진안 본가로 돌아왔다. 얼마 후 10월 15일에 거의 기일을 암시한 윤자신의 시를 전달받고 최제학은 동월 20일에 고산으로 다시 향했다. 하지만 지난 17일에 윤자신의 집이 의병을 사칭한 토비(土匪)⁷⁶⁾들에게 약탈을 당하여 이들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합방이 되자, 윤자신은 최제학에게 원주로 가서 다시 의병을 일으키도록 권유했다.⁷⁷⁾ 이에 최제학은 원주 의병장 이강년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다. 도중에 정산에서 최영설을 만났는데, 이강년·허위(許薦)·민궁호(閔肯鎬) 등이 일본에게 체포되어 교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75) 『습재실기』, 잡저, 『정경회상록』, 70~71쪽

76) ‘토비’는 화적 집단으로 추측되는데, 정확히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지 알기 어렵다. ‘김현주, 2015, 『1907년 의병봉기와 화적집단의 활동』, 『한국사연구』 171호, 266~267쪽’을 참고해보면, 청국의 의화단운동 세력, 성진민요 세력 등에게 토비란 용어가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생의병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의병 주류집단을 ‘토비’, 무장강도 집단 일반을 ‘화적’이라고 설정하고 그들이 각자 ‘義’라는 가치를 취하고 있지만, 물자를 토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아 그들은 ‘義’를 가칭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77) 尹丈曰：“吾儕豈可以復有待也？聞吾子與原州義兵將李康年有舊，須馳往道吾志，相與收散卒而來，一振義聲而死，可也。” 『습재실기』, 잡저, 『정경회상록』, 72쪽

두 차례의 제거의가 무산되자, 최제학은 지리산으로 입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⁷⁸⁾ 이후 암울한 시대에 상심하며 지리산을 중심으로 남원(南原), 운봉(雲峯), 구례(求禮), 곡성(谷城), 순천(順天), 광양(光陽), 하동(河東), 함양(咸陽) 등지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⁷⁹⁾ 1912년에는 「임자밀맹단(壬子密盟團)」에 들어가 하동지역 책임자로 활동하였고,⁸⁰⁾ 1914년에는 장수에서 지냈으며,⁸¹⁾ 1915년에는 처자식들을 데리고 하동 청암면(靑岩面) 학동(鶴洞)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동으로 거처를 옮긴 최제학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일본의 감시대상이 되어 수차례 옥고를 치르며 갖은 곤욕을 당했다.⁸²⁾ 1917년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상해로 가려다가 일본에게 붙잡혀 하동 경찰서에 20여 일 동안 구금되었으며, 1920년에는 일본이 하동경찰서 관원에게 최제학의 몽타주를 그리게 하고 감시하도록 했다. 5년 뒤인 1925년에는 최제학과 친분이 있던 박효수(朴孝洙)가 하동 면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운신(運身)의 자유를 얻게 되자, 이를 기회로 정재규, 정시해, 윤자신의 자손들과 왕래하며 다시 국권 회복을 위한 거사를 도모하기도 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협력하다가 일본에게 적발되어 50일 동안 또 한 차례 구류되었고, 1945년 64세가 되던 해에 광복을 맞이하였다.

광복에 기쁨도 잠시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이 분할되고, 남한의 정치마저 혼란해지자 최제학은 1947년 2월 안종삼(安鍾三)의 도움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구례(求禮)로 거처를 옮겼다. 1953년 최제학은 다시 청암면으로 거처를 옮겼고, 6년 후인 1959년 9월 10일, 향년 78세로 사동(寺洞)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처럼 최제학은 태인의병이 강제 해산되고 스승 최익현의 사망 후에도 제거의를 도모했으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일본에 항거하며 살아온 사실을 알 수 있다.

78) 최제학이 지리산으로 입거하려는 계획은 정종엽(鄭鍾燁)의 『수당유고(修堂遺稿)』, 권 4, 「錄」에 보인다.

79) 『습재실기』, 「유사」, 9쪽

80) 이석용이 1912년에 조직한 「임자밀맹단」 명단에 하동지역에 최제학과 이규진(李奎鎭)을 선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강길원, 1982, 「한말 호남 의병장 정재 이석용의 항일투쟁」, 『원광사학』 제2집, 72쪽

81) 1914년 회천(晦川) 이규진이 최제학에게 보낸 편지에 자신의 두 아들을 장수 번암(礮岩) 호동(虎洞)에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보인다. “旣結構於礮岩虎洞, 一以便老兄之居宿, 一以調二兒之適宜.” 『회천유고(晦川遺稿)』, 권2, 「答崔習齋仲悅」.

82) 최제학이 하동으로 거처를 옮긴 뒤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상황은 『습재실기』, 「유사」에 보인다. 유사는 현토가 되어 있다. 종손 최병섭이 기록한 문건으로, 최제학 자신이 스스로 말하지 못할 부분들을 정리·기록하여 최제학의 전반적인 생애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보조 자료이다.

5. 맺음말

1901년 최제학은 최익현과 사승 관계를 맺은 후 최익현을 자주 방문하면서 진안의 탐진 최씨 집안 인물들을 소개하고 문인 관계를 맺게 했다. 이러한 과정 중 최익현이 반일 상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금된 상황을 목격하였고, 최익현에게 을사늑약 체결 소식을 전해 듣게 되면서 항일의식이 자연스럽게 고취되었다.

최제학은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유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노성 율리사 유회를 준비할 당시 최익현의 포고문과 편지를 송사 기우만 및 지역 유림들에게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태인의병의 첫 순국자인 정시해와 지기(知己)가 되었다. 또 태인의병을 주도한 최익현과 임병찬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최제학은 최익현이 거의(擧義)를 위해 호남에 내려올 당시 거쳐 마련 및 행선지 일정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면서 최측근에서 호종하였다. 당시 최익현은 일본의 감시 대상이었고, 73세로 고령이었기 때문에 최익현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임실의 상이암과 진안의 삼우당에 최익현의 거처를 마련한 일은 최제학의 주도면밀한 성격을 보여준다.

태인의병 당시에는 소모장으로 임명되어 각지의 의병을 모집하였고, 만형 최제태와 집안의 재산을 모두 소모하여 군량미와 군수품을 확보하였다. 또한 자신의 집안 사람들을 태인의병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전주·남원 진위대의 개입으로 태인의병이 해산되자, 최제학은 일본군 사령부에서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0월 25일 석방되자마자 최익현이 있는 대마도로 향하여 문후하였고, 최익현이 순국하자 반구(返樞)할 당시 사서직을 맡아 조객록(弔客錄), 부의록(賻儀錄) 등 7건의 기록을 정리하였다.

최제학은 최익현의 시신을 정산에 안치한 이후 1907년 9월에 고산의 진사 윤자신과 함께 재거의를 도모하였다. 하지만 의병을 사칭한 토비(土匪)들의 침탈로 인해 좌절되자 1915년 지리산으로 이주를 결심하였다.

1917년 최제학은 상해(上海)로 건너가 항일활동을 하려다가 일본에게 발각되어 하동 경찰서에 20일 동안 구금되었고, 1929년에는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하여 50일 동안 구류되었다. 그 후에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일본의 감시가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고초를 직접 겪었다. 이처럼 최제학은 최익현의 문인이 된 후 항일의식이 자연스럽게 고취되어 평생을 일본에 항거하며 살았다.

최익현을 최측근에서 도왔던 최제학의 『습재실기』를 통해 최제학의 생애와 그의 항일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존 최익현과 임병찬에 집중된 선행 연

구 주제에서 벗어나 항일투쟁사에 적잖은 역할을 한 최제학을 조명함으로써 소외된 이들의 항일활동을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 본고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순창 12의사’인 고석진의 『方壺集』, 문달환의 『遜齋集』, 양재해의 『華隱文集』, 조우식의 『省菴集』, 그리고 정시해의 『一狂集』 등 태인의병에 참여한 인물들의 새로운 자료들을 연구함으로써 최제학의 전북지역 유림과의 교유관계와 사회관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참고문헌

한문원전자료

- 서일범 저, 『회천유고(晦川遺稿)』(국립중앙도서관, 古3648-33-71), 1915.
양재해 저, 『화은문집(華隱文集)』(국립중앙도서관, 古3648-46-36-1-4), 1962.
임병찬 저, 『돈헌유고(遯軒遺稿)』(국립중앙도서관, 古3648-64-29), 1957.
정시해 저, 『일광집(一狂集)』, 호남문화사, 1994.
정종엽 저, 『수당유고(修堂遺稿)』(국립중앙도서관, 古3648-70-264-1-2), 1968.
조석일 편, 『채미연원록(蒞薇淵源錄)』(국립중앙도서관, 古2513-260-2), 1967.
조영선 저, 『배헌집(拜軒集)』(국립중앙도서관, 우촌古3648-72-30), 1959.
최익현 저, 『면암집(勉庵集)』(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46-가38), 1900.
최제학 저, 『습재실기(習齋實紀)』(전주대학교 도서관, OM 810.819 최446 八), 1963.
탐진최씨족보편찬위원회, 『탐진최씨족보(耽津崔氏族譜)』 회상사, 1988.
황현 저, 『매천야록(梅泉野錄)』(국립중앙도서관, 041-125-13=2), 1973.

단행본

- 김건우·홍영기·변주승·윤상원·오경택·전병구·이정욱·송정현·박선영·설주희·안성은·임미연·국중웅·이동학·최우영, 『가장 치열했던 한말 전북의병사』, 흐름출판사, 201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2집·제3집, 1971.
박민영, 『한말중기의병』,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선종순·김동현·김영·김기완·안성은 역, 『습재실기』, 흐름출판사, 2017.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선인, 2007.
임형택 역, 『梅泉野錄』(상)(하), 문학과지성사, 2005.
장수향교벽계승람편찬위원회, 『碧溪勝覽』, 회상사, 1975.
전라남도 경무과, 『전남폭도사』, 1913.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홍영기, 『한말 태인의병 자료집 I』, 지역문화자료총서 제1집, 2009.

논문

- 강길원, 「한말 호남 의병장 정재 이석용의 항일투쟁」, 『원광사학』 제2집, 1982.
- 김건우, 「한말 전북지역 의병의 인적 관계망-습재 최제학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52호, 2018, 253-273쪽.
- 김상기, 「최익현의 정산 이주와 태인의병」, 『충청문화연구』 7호, 2011, 25-51쪽.
- 김종수, 「돈헌 임병찬의 생애와 복병운동」, 『전북사학』 44호, 2014, 129-160쪽.
- 김현주, 「1907년 의병봉기와 화적집단의 활동」, 『한국사연구』 171호, 2015, 247-275쪽.
- 박민영, 「곽한소의 생애와 항일투쟁」,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4집, 2015, 66-97쪽.
- 안성은, 「습재(習齋) 최제학(崔濟學)의 생애와 항일활동」, 전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 이지은, 「경술국치기 전북지역 자정순국자에 대한 검토」, 전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 홍순창, 「淳昌 12義士에 관한 小考」, 『영남사학』 10·11합집, 1981.
- 홍영기, 「한말 泰仁義兵의 활동과 영향」, 『영남사학』 11호, 1997, 395-428쪽.

<Abstract>

**The Anti-Japanese Activities of Seupjae Choi Je-hak, the
Confucian in Jeollabuk-do Province, after the Protectorat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An, Seong-eun^{*}

When the Korean Empire became a Japanese colony in 1905 with the signing of the Protectorat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numerous patriots took their own lives and armed resistance was organized throughout the nation. The first righteous army rose up in Jeolla-do Province in protest against the treaty is the Taein Righteous Army(泰仁義兵).

Previous studies on the Taein Righteous Army focused mainly on the lives and ideas of the leaders Choi Ik-hyun(崔益鉉) and Im Byeong-chan(林炳贊), or on the overall activities of the Taein Righteous Army. This is because the two leaders played a great role in the army. But in order to have an overview of the activities of the Taein Righteous Army, we need to identify more people who actually joined the army and provided assistance.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life and anti-Japanese activities of Seupjae(習齋) Choi Je-hak(崔濟學) who was from Jinan, Jeollabuk-do Province and who assisted Choi Ik-hyun as a closest aide. After Choi Je-hak established a master-disciple relationship with Choi Ik-hyun in 1901, and even before the Taein Righteous Army was organized, he took charge of important tasks for the struggle against the Japanese invaders, such as procuring munitions and delivering Choi Ik-hyun's letters to Confucian scholars around the nation. After Choi Ik-hyun died for the country, Choi Je-hak continued to devote himself to anti-Japanese activities until his death.

This paper aims to give an overview of the life of Choi Je-hak, focusing on SeupjaeSilGi (習齋實紀), a document that Choi Je-hak left behind, and to examine his anti-Japanese activities during and after the resistance of the Taein Righteous Arm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at it moves further than

* Scholarship Assistant, Jeonju Branch,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the previous research which was focused on Choi Ik-hyun and Im Byeong-chan towards elucidating Choi Je-hak, a figure wh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history of the righteous army in Jeollabuk-do region during the Korean Empire, and trying to figure out the anti-Japanese activities of those who have been overlooked so far.

Key Words : the Protectorat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concluded in 1905 (乙巳勒約), Honam righteous Army(湖南義兵), Taein righteous Army(泰仁義兵), Anti-japanese movement(抗日運動), independent movement(獨立運動), SeupjaeSilGi(習齋實紀), Confucian scholars (儒林), National humiliation occurred in the year kyungsul(庚戌國恥)